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



## 안전보건의 새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영순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우리 공단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더 크게, 더 높게 비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는 2017년 대한민국의 키워드를 '치킨런'(CHICKEN RUN)으로 정했습니다.



‘치킨란’은 애니메이션 영화 제목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닭도 노력하면 날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처럼 새롭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꿈이 담겨 있는 정유년에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자동차, 철강, 기계산업의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설과 석유화학업종은 현상유지 또는 후퇴기에 접어들고, 조선업은 당분간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기업경영 및 안전보건관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산재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올해 우리 공단의 경영 목표는 **사고 사망만인율 0.47 베이스 포인트(%) 달성**입니다. 우리 공단은 미래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 대응능력을 높임으로써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 공단이 올해 중점 추진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대형사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커지면서 산업현장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결집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올해 건설업 22개 위험공정에 대해 ‘위험작업 집중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00억 원 이상 공공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 건설안전지표를 산정해 건설공사의 자율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물량을 확대하고, 공장 신설이나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때부터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겠습니다.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겠습니다.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리, 위험성평가, 위험경보제 등 종합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또, 연중 수시 발생하는 정비, 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요청 시 현장에 입회하는 등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 재해 취약 산업현장을 점검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연중 수시 발생하는 정비, 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요청 시 현장에 입회하는 등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취약 산업현장을 점검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산재취약계층의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안전보건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클린사업장 지원방식을 사망사고 예방 품목 중심으로 개선하고, 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지원 비용도 확대하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sup>2)</sup>은 보다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늘려 지원 하겠습니다. 음식조리원, 배달종사자 등 서비스업 산재다발 직종에 대해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장년, 일용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외국 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공단만의 힘으로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공생 협력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외에 조선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수준평가 지도를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겠습니다.

노·사의 자율적인 유해위험 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안전보건을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 국제인증규격 ISO 45001 공표에 대비해 인정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근로자 건강증진과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만 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중독성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기업건강지수 도입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건강증진 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헬스존을 추가 설치하고<sup>3)</sup>, 감정노동 고위험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교육과정 운영, 안전체험교육장 확충을 통해 현장실천 중심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험교육,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미디어 보급망을 강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업종별 안전보건 리더그룹 운영과 지역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 공모사업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미래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신기술, 신공법, 신산업 등 새로운 위험 창출요인에 대해 기술적, 관리적, 정신심리학적인 연구기능을 확대해 위험 인지, 위험 분석 및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로환경조사,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사전 예방적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안전보건 문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시험 등 만성흡입독성 시험연구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 국외 전문기관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날과 같은 방식으로는 10년, 20년 후 우리나라 안전보건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전략이 있다고 모두 성공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변화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일'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이 결심하면 우리나라 안전보건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 어떤 목표도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안전보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안전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석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비계조립, 해체 등 22개 위험 공정 사전확인 및 컨설팅
2.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10,000개소 37억원('16) → 16,000개소 60억원('17)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80,000명 49억원('16) → 100,000명 61억원('17)
3. 5개소('16) → 21개소('17)